

지체장애2급 노인의 방임학대

I. 사례 개요

1. 개요

- 본 사례는 지체장애 2급 장애로 c't는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손자,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들은 사업 실패 및 이혼 후 자녀들과 어르신을 돌보지 않으며 원활한 식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방임 사례임.
- 사례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어 자녀를 만나 원활한 사례 개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녀의 거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사례 개입의 어려움 있었음.
- 자녀와의 연락을 시도하며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통해 어르신에게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및 밑반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손자, 손녀에게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학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며 이웃 사람의 도움으로 아들과의 연락이 이루어지고 상담을 통해 원활한 사례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음.

2. 접수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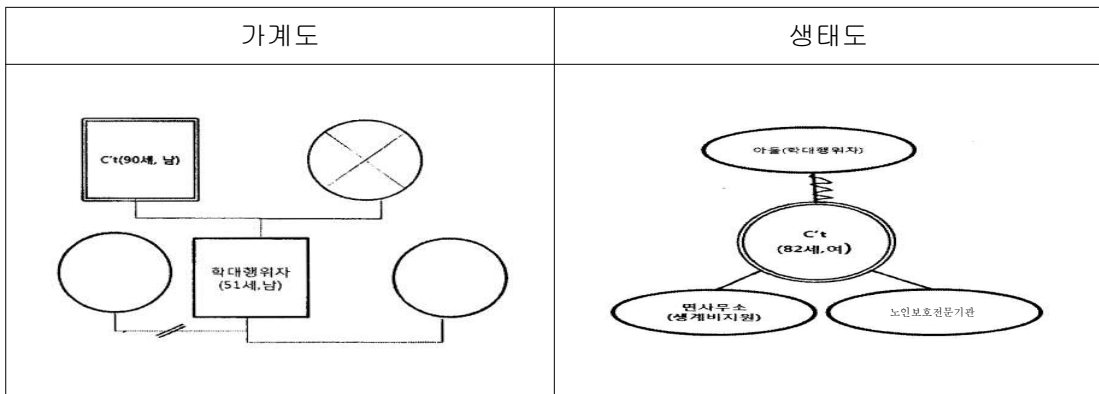
- 피해자 : 김○○(여, 90세) 무학, 무직
- 행위자 : 김○○(남, 51세) 단순노무직
- 학대상황

방임학대 : 노환 및 지체장애 2급으로 방에서 누워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는 연락두절 및 원활한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정서에 대한 지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임.

II. 사정

1. 가족력

가. 가계도 및 생태도



나. 가족 구성원 기본사항 및 특성

□ 피해자 c't (남, 90세) 무학, 무직

지체장애 2급으로 방에서 누워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손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어르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서 생활하기도 어려우며 바깥출입 시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함. 지체 장애인으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며 자녀의 이혼으로 인해 어르신은 혼자 누워서 생활하고 있음.

□ c't의 아들 (남, 51세) 단순노무직

현재 학대행위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으며 이혼상태이고, 어르신을 가끔 찾아뵙고 있으며 단순 노무직에 종사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고 있음.

2. 문제 사정

가. 건강상 문제

c't는 지체장애 2급 및 당뇨를 인한 약물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임.

나. 자녀와의 단절 문제

아들은 이혼과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두절되고 방문은 1달에 한번 또는 3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 있으며 아들의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통화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다. 경제적 능력

- c't의 가족은 의료보호 대상자 2종인 상황이며 현재 아들의 명의로 된 집은 빚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c't 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

3. 욕구(need)

피해노인(c't)	학대행위자	기타주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함. • 밀반찬 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적 지원을 요구 • 재정적 지원 	밀반찬 서비스 및 말벗 서비스 연계 및 손자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연계 확보.

III. 개입

1. 개입 목표 및 계획

가. c't의 안전을 확보

- 원활한 식사 제공 및 지속적인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르신 건강 문제 체크 및 확인.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지.

- 나. 정서적 문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 지역 자원봉사센터 밑반찬 가사 서비스 지원 및 말벗 도우미 요청.

2. 개입과정

- 가. c't의 상담 : 현장조사/상담
 - 처음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실은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으며 빨래 및 옷들이 거실 바닥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어르신의 집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웃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게 보였다. 어르신은 지체장애 2급으로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2종으로서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함.
 - 어르신에게 아들에 대한 왕래 및 연락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무엇보다 필요 것이 손자녀의 학습 지원 및 도움을 받고 싶으며, 가사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고 싶다고 한다. 또한, 아들이 학대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노인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나. c't의 아들 (학대행위자)

아들은 먹고 사는게 힘이 들어서 집에 들어와 방에 누워 있는 아버지와,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 아들, 딸을 보면 속상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차라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르신을 잘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을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함.
- 다. c't의 가족 서비스 제공
 - 손자녀의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연계
 - 학대행위자의 자립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연계
- 라.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 어르신은 지체장애 2급으로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어르신의 취약한 가정생활 및 거주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기관에 의뢰를 요청하였다. 말벗, 도우미, 밑반찬을 요청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도움은 어려울 수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어르신에게 필요 서비스가 제공되고자 함.
- 마.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

학대행위자의 정기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과의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학대행위자는 처음 자활후견기관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다른 이웃들과도 원만한 관계 형성으로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임.

3. 현재상황

c't는 현재 아들이 재혼을 하고 새로 맞이한 며느리의 부양과 정기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로 인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손자녀들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로 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고 점차 가정에서 안정을 찾고 나자 아들의 부양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사후 관리를 통해 어르신과의 원활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IV. 평가

본 사례는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이혼으로 인해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저하로 방임학대가 일어난 사례로, 사회복지전담요원의 관심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노인학대 예방이 가능하였던 사례임. 아들의 사업실패 및 이혼으로 인해 c't와 손자녀의 방임학대 행위가 일어났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사례 개입과정에서 학대행위자, c't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진행되었다. 또한 재혼으로 인해 며느리는 어르신의 부양이 이루어지고 안정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c't의 방임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아들은 재혼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 일자리 마련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근황에 대해 알 수 있었음.